

광주시, '계엄·내란 사태' 계기 '가치행정' 추구한다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총력 5·18정신계승위 출범 기념법 추진 한강 작가 책 나눔... '책임은 광주' 강 시장 "나눔·상생·포용 행정 주력"

광주시가 '12·3 계엄·내란 사태' 계기로 '가치행정'을 추구한다.

광주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오월정신의 외연 확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왜곡·편향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히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광주시는 16일 지난 5월 공포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에 근거해 '제1회 5·18민주화운동정신계승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광주시는 앞서 11개로 흩어져있던 조례를 1개로 통합하고 진상규명, 왜곡 대응, 시민협력 등 미비했던 내용을 새롭게 정비했다.

정신계승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정신계승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광주시를 비롯해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여러

기관·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교계의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목사)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18정신 등 헌법전문 수록, 5·18기념법 제정과 함께 왜곡·편향에 맞선 정의로운 역사 바로 세우기, 제8차 5·18민주화운동 보상 추진, 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진, 제15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 등 5·18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 시장은 이어 이날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등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12·3 비상계엄을 막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가능케 한 힘인 오월영령과 광주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례조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세

계에 알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 '책임은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서는 골목서점인 독립서점이 살아야 한다며 한강 작가 도서 등 총 600권(도서 300권, 도서구매권 300매)을 구매해 '독립서점 도서전시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제8차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신청자' 69명에게 보상금 8억2400만원을 지급 결정했다. 학사징계, 해직 언론인 등에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에 대해 국회 진행상황과 5·18민주화운동 분과위원회 활동사항 등 4건을 보고했다. 재분류 신체검사자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의

및 보상금 등 지급결정(안) 등 7건의 심의 의결했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 외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관련자도 46건(연행구금 18건, 학사징계 20건, 해직 8건)이 결정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강 시장은 "1980년 '광주'의 경험과 교훈은 2024년 대한민국을 구했다. 특히 5·18을 경험하지 않은 10대부터 2030까지 모든 시민이 용기를 냈다"며 "시민들의 용기에 광주시는 가치행정으로 응답하겠다. 인간의 존엄과 나눔과 상생, 포용의 가치에 걸맞은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오월정신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최우수

지역산업 기반 맞춤형 고용 창출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단체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심층평가를 해 전남도를 포함한 4개 지자체를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전남도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청년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 농·수협 등의 기관과 지역 산업 기반의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직무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등 청년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업 참여자인 정재훈씨는 "사업 참여를 통해 직무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며 "워크숍과 간담회 같은 네트워킹 기회도 있어 유대감을

높이고 회사 복귀 등 정보교류를 함으로써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행안부 공모에 참여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2024년 한 해 물류·유통, 조선,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강소기업과 협력해 인건비, 고용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총 1393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정부 정책 변화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단계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남형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기존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절벽에 맞닥뜨린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 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민주당 광주시당, 민주묘지 참배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지구구청장 등이 16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나근호 기자

광주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단계적 인상

보훈대상자 예우·복지 강화

광주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참전명예수당 등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광주시는 재정문제 등으로 혜택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미참전공상군경도 명예수당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독립유공자와 보훈유족에 대한 보

훈명예수당은 현행 월 5만원에서 2025년 월 6만5000원, 2026년 월 8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또 신설된 미참전공상군경은 2025년 6만5000원에서 2026년 8만원으로 인상된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80세 이상의 경우 현행 월 13만원에서 2025년 월 15만5000원, 2026년 18만원으로 인상된다.

65세부터 79세까지는 현행 월 10만원

에서 2025년 11만5000원, 2026년 월 13만원으로 증가한다.

보훈·참전명예수당은 다음달 2일부터 신청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통장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전남일보 @jnil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전남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전남일보 E-Mail: jebc@jnilbo.com

이제는 혼자도 편하게 떠나라

홀로당당

무안출발 도쿄/나리타 여행

2024/12/02 ~ 2025/03/26

1인 상품가 999,000원부터~

JIN AIR 문의/예약: 1522-1901

* 해당 상품은 출발일마다 요금이 상이합니다. ▶ 포함내역 : 항공 및 유류세TAX, 호텔(2인1실), 차량, 가이드, 일정상의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2억원 여행자보험 ▶ 쇼핑 : 1회 (면세점)
▶ 불포함 내역 : 기사 & 가이드팁(1인 ¥3,000), 매너팁, 싱글차지(2박/15만원), 국내수송, 기타개인경비,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종합여행업 기획여행신고(2억원) 100-000-2024 0474 4822 호 ▷ 관광사업자 등록 제2008-000001호 ▷ 사업자등록 410-81-73451 (주)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